

투호 던지기·코코넛 신고 달리기...아시아 전통놀이 즐겨보자

ACC '아시아 개·타투' 테마전...신세계갤러리·시립미술관 세화전
전남도립국악단 설맞이 특집...남도국악원 '새해, 새나라' 공연



17일 열리는 전남도립국악단 공연에서 '해금 아리랑'을 연주할 '비정상회담' 출연자 크리스티안.

설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15~18일 ACC 어린이문화원에서 '혼자 놀까? 함께 놀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의 면제기, 일본의 다루마 오토시, 한국의 제기차기와 사방치기, 인도네시아 라리까유, 태국의 코코넛 신고 달리기 등 다양한 아시아 전통놀이를 만날 수 있으며 한국역사문화협회와 함께하는 아시아 전통놀이 제작 프로그램(복주머니·팽이 만들기)도 준비했다.

또 매일 두차례 '집으로', '이웃집 토도로' 등 엄선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Cinema For Family'가 진행되며 어린이 국악단 '두드러기-아리솔'의 길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그밖에 가곡 개피 자랑 '개피는 이리왈왈', 김서연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어린이도서관의 '설날에도 놀러와, 이야기숲으로' 등이 열린다.

어린이문화원 안 곳곳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SeMA 순회전 '울동 : 규칙과 운동감'은 미적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돕는 기획이다.

설 연휴 동안 ACC에서는 다양한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아시아의 개' 테마전은 ACC가 수집한 사진, 영상, 도서 등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



일본 전통놀이 다루마 오토시.

었던 개를 다양한 작품과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는 기획이며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에서는 '벨빌의 세 쌍둥이', '동굴에서 나온 누렁개' 등 개를 소재로 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라이브러리파크 기획 3관에서는 '아시아의 타투 (Tattooed Asia)' 전시가 열리고 있다. 태국, 대만, 일본, 미얀마, 필리핀 등 다양한 지역의 문신 사진, 영상, 문헌 자료, 3D 콘텐츠, 실물 자료 등을 통해 전통에서 현대까지 문신의 여러 의미를 되짚어 보

는 기획이다.

문화장조원 복합 6관에서는 '나는, 코레예즈(kop eez) 4세'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로, 광주 광산구 고려인 공동체 사회로부터 시작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를 연결하는 순례의 여정을 보여준다. 그밖에 토마스 사라세노의 '행성 그 사이의 우리'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ACC는 설날 당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ACC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체험관과 문화장조원을 무료로 개방하며 연휴기간에는 50%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황금 개피'를 맞아 다양한 세화전도 열리고 있다.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지역 중견·신진 작가 15명이 참여하는 신년 기획전 '福 받으시개'전을 오는 20일까지 연다. 작가들의 재치 넘치는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작들은 유쾌함이 가득하고 따뜻함도 느껴진다. 모두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참여작가는 김상연·김선희·김지영·김해성·노여운·성혜민·손봉채·송영학·신호운 작가 등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시민 행복 기원 '세화전'을 25일까지 판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꽃길만 걸어요'로 정했다. 전시에는 한민정·김수진·김왕주·강일호·박광미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그밖에 시립미술관에서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2017'빛'전, '2017 신소품품전', '신호운-피안의

섬' 전(하정웅미술관) 등도 만날 수 있다.

롯데갤러리는 신년맞이 두 번째 기획으로 겨울의 표정을 담은 전시 '우리 동네 겨울이야기'를 28일까지 진행한다. 조현·노여운·박성화·한희원·이이남·소빈 작가 등이 참여했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정영)은 17일 남도소리유평에서 제67회 토요공연 설맞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중인 멕시코 패널 크리스티안을 특별 초청, '해금 아리랑'연주와 한국생활 이야기 토크쇼 형식으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리솔 어린이 국악예술단과 전남도립국악단이 함께 꾸미는 '재상설장고 놀이', '우타리 농악'의 무대가 이어지며 '우리 비나라', 민요창무극 '강강술래', 남도민요 '널뛰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들은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연장 1층 로비에서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등 전통놀이체험도 할 수 있다.

국립남도국악원과 진도군청은 16일 오후 3시 진도향토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설날 특집공연 '새해, 새나라' 공연을 펼친다. 신명나는 '길놀이'와 '판굿'을 시작으로, 마당극 '화초장', 무용 '부채춤', 민요 '달맞이, 널뛰기, 진도아리랑',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진도 북놀이'로 흥을 돋울 예정이다.

또, 지역 출신의 젊은 예술인으로 구성된 '바라지'팀을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표전화 1522-4077

Y-mart.net NAVER 쇼핑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랑 나누는 행복을 실천하는 Y-MART가 함께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고객님이 주신사랑 나누겠습니다!

포인트를 통합하다! Y-MART 앱 설치하면 어느집에서나 쉽고 빠르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출시 2017. 11. 20(월)

설치 방법

1.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하세요.
2. 'Y마트' 검색 후 설치
3. 단말기 지정하기
4. Y마트 앱으로 스마트폰 혜택받기

Y-MART '나눔'실천 업체!

Y-MART는 앞으로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 20년 동안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사업
- 해남 3억 이상의 지역사회 환원사업 및 후원사업
- 광주지역 김포동 TV, 장수기 지원사업 (200여곳)
- 광주지역 장애인 후원사업
- 광주지역 나눔실 후원사업
- 복구청 나눔실 후원사업
- 북구자원봉사센터 후원사업
- 장애인정보화협회 후원사업
- 나눔과 기쁨 후원사업
- 푸드뱅크 후원사업
- 광주시민센터 후원사업
- 광주여성영양회 후원사업
- 목포지역아동센터 후원사업
- 아름다운기개 후원사업
- 염마우소복지관 후원사업
- 세실리아 요양원 후원사업
- 담양 운두리재활원 후원사업
- 영도요양원 후원사업
- 전남대학교
- 크로청사내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필리핀 태풍구호
- 광주국제교류센터
- 왕봉동 비탈기계 도서관
- 수원점 도매비 도서관
- 왕우점 용두마을 보육센터
- 두암점 두암마을 보육센터
- 신나는 교실
- 미술 도서관
- 광주비밀날래
- 중외공공을 사랑하는 사람들
- 행복 나눔 사랑 테크 3점 30물
- 지리산생수 2L/500ml
- 종이컵 (50송) 1박스
- 광도강산 조미김 16봉
- 헬링 들자반 50g
- Y-MART상품권(1만원)
- Y-MART상품교환권(3천원)



지난해 열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국악 공연.

박물관에 가면 다채로운 민속문화행사

국립광주박물관 '우리문화 한마당'
시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체험마당'
영산강문화관 민속놀이·문화공연

설 연휴를 맞아 박물관 등에서는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설 연휴 '2018년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연휴 기간에는 도동태 굴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팽이치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전통 놀이 체험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재미로 보는 윷점', '부적 만들기', '전통의 상체합' 등도 펼쳐진다. 교육 강당에서는 15일 '쌍', 17일 '쿠보와 전설의 악기', '라라벤드' 등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 설 당일 16일은 휴관이다. 문의 062-570-7016.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조만호)에서도 15~18일까지 '2018 설맞이 민속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삼재부 및 개(戌)문양 짚기, 각종 민속놀이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굴렁쇠 굴리기,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팽이차기,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등이 진행된다. 설날 당일에는 가족영화가 상영되며 캘리그라피로 덕담을 써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국악협회가 준비한 가야금 연주, 판소리, 사물놀이, 남도 민요 등 다양한 국악 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062-613-5363.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에서는 15~18일 걸쳐 설날 행사를 진행한다. 승춘보 일대 및 영산강문화관을 중심으로 전통 민속놀이, 문화공연 등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17일 문화공연으로는 전통타악 단체 '하늘땅 두드림'을 초청해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인다. 18일 윷놀이 경연대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자(2인 8조)를 모집하며 우승한 가족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새해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카드 만들기 체험과 개피 방문객 및 한복을 입은 방문객에게 즉석사진 촬영을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